

강진군, 2030 발전로드맵 수립 구체화

4차산업혁명 대응 위한 성장 원동력 발굴 중점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강진군이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승욱 군수 주재로 광주전남연구원, 심화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 부재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4차산업 혁명,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한 강진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도출, 권역별·분야별 개발 계획, 2대 특수과제 및 10대 선도사업 발굴 등이며 특히 민

선7기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 위한 실현 방안을 수립중이다.

지난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읍면 순회 간담회, 주민 설문조사, 강진군 부서 협의회 등을 통해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발전계획에 담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진군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들을 구체화 해오고 있다.

수행사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발전계획 수립 방향, 분야별 발전 전략과 10대 선도 사업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참여 연구진과 강진군 간부 공직자간 질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군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군의회 보고 및 주민 공청회를 통해 군민이 공감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완성해 갈 예정으로 2030년까지의 선명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각종 정책개발과 전략수립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욱 군수는“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강진군이 가진 잠재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2020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수산 기반시설·어린이놀이시설·도서관 등 조성

장흥군은 해양수산부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관산 우산항과 회진 신상·신기항, 회진 대리항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81억원(국비70%, 지방비 등 30%)이 투입돼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관산 우산항은 총사업비 98억원이 투입돼 방파제 연장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며 정남진 전망대 인근에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수산물 직판장 포함), 요트계류장 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

회진 신상·신기항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수산물공동작업장 등 수산기반시설 조성, 다목적회관을 리모델링해 어린이놀이시설과 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회진 대리항은 지역주민과 대리항 방문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 정비와 낚시공원

내 데크시설, 어항시설 정비, 해조류간이거점시설, 바지락어장진입로 등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98억원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에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으로 전체 사업비 중 70%가 국비로 지원된다.

장흥군은 지난해 회진면 노령항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선정된 3개소가 모두 선정됨에 따라 나후된 어촌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사업 공모 기간 내에 자체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와 전문가를 통한 공모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면밀한 준비를 실시해 왔다.

장흥=위지훈 기자

삼호도서관, “같이의 가치를 전해요”

영암군 삼호도서관이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삼호도서관은 3월부터 9월까지 내·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성 프

로그램으로 ‘꽃꽂이-우리 함께 꽃과 함께’, ‘장아찌-발효이야기’를 운영하여 상호문화 이해와 국내 적응 지원을 도모하게 된다.

이처럼 전문인력적 프로그램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의 가치를 탐색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서울그랜드필하모닉 콘서트’

12월 20일 오후7시 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목포시는 오는 20일(금) 오후 7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콘서트 with 포레스텔라’를 개최한다.

창립 24주년의 역사와 실력을 겸비한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통 클래식은 물론 관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

는 다양한 음악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500여회 이상 펼친 국내 최정상급 클래식 교향악단이다.

이번 공연은 상임지휘자 서훈을 필두로 JTBC ‘팬텀싱어’ 시즌2의 우승팀인 포레스텔라, 뮤지컬 ‘팬텀’의 여주인공(크리스틴 다예 역)으로 활약했던 소프라노 김순영,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진이 함께하여 클래식과 크로스오버가 빛어내는 웅장한 하모니를 연출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1층) 30,000원, S석(2층) 20,000원으로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학생(대학생까지)은 20%, 단체(20인 이상)는 30%, 단체(100인 이상) 및 국가유공자 등은 50% 할인된다.

티켓 예매는 인터넷 사이트 티켓링크,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며, 단체할인 예매는 목포시 문화예술회관(061-270-8488)에서 할 수도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한다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내년부터

무안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속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속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속 후기 또는 부속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비 부속도 검사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는 1년에 1회 퇴비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속도 기준을 만족하는 퇴비를 퇴역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하며, 검사 결과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속도 기준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비 부속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 12일 문탄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속도 관리대상 축산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구슬땀’

함평군 함평읍 지역사회단체가 지역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함평읍 4개 사회단체(남·여의용소방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봉사회,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지난 12일 지역 장애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각 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창고와 마당에 쌓여있던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정리하는 등 주택 내·외부 주거환경을 말끔히 정리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